



세계 결핵의 날과 복십자의 유래

결핵균의 발견과 “결핵의 날”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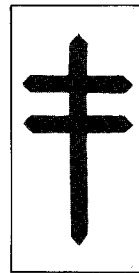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인 1882년 3월 24일은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R. Koch)가 베를린 생리학회에서 당시 만연하던 여러 질병 중 가장 많은 인명을 앓아가던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여 세상에 발표했던 의과학사상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가 결핵균을 발견할 당시만 해도 유럽인 7명 중 1명이 결핵으로 사망할 정도였고 결핵이 영아 사망원인의 1/3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수천년간 온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결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세계 민간 항결핵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은 이 날을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는 연도인 1982년

에 “세계 결핵의 날”(Universal Tuberculosis Day)로 제정 공포하였다.

복십자의 유래



복십자(The Red Double-Barred Cross)는 9세기 경에 근동의 어느 기독교 교파의 상징으로 쓰인 일이 있었으며 그 후 11세기 말 제1회 십자군의 지휘자였던 로레인 공작 「고드프로와 · 드 · 부이용(Godfroy de Bouillon Duke of Lorraine)」이 이 복십자를 방패의 문장으로 삼아 싸워 이긴 일이 계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되었다.

이 복십자가 세계 공통의 결핵예방운동의 상징으로 된 것은 1902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결핵회의 석상에서 프랑스의 셸시롱 박사(Dr. Gilbert Sersiron)

가 이 표식을 결핵예방운동의 국제적 상징으로 할 것을 제창하여 채택되면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이 복잡자는 붉은 색을 원칙으로 하여 크리스마스 짙은 물론이며 결

핵협회의 기(旗)나 팜플렛, 결핵검진차, 기타 결핵퇴치사업을 위한 출판물 등과 결핵예방운동이나 행사 때에는 항상 사용하게 되고 있다. †

제12회 세계결핵의 날 행사 안내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 박사가 1882년 3월 24일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본 회에서는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건사회부와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IUATLD)의 후원하에 결핵퇴치에 힘쓴 공로자에게 복잡자대상(공로부문, 봉사부문)을 수여하며, 기념식과 기념강연을 갖습니다.

특별강연으로는 박동진(중요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옹의 "나의 삶, 나의 소리"의 강연과 판소리, 미요 시부야(Miyo Shibuya, 일본 북해도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부인단체연합회장)의 "일본의 결핵과 주부의 역할"에 이어 김준명 교수(연세대학교의과대학)가 "에이즈와 결핵", 홍영표 원장(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1993년도에 실시한 일반인의 결핵인식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94년 3월 24일 (목) 14 : 00

장소 :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대한결핵협회

후원 : 보건사회부, IUATLD